



## 화합과 단결의 한마당 대전충남인쇄문화축제 성료 1천여 인쇄인모여 축구대회·달인선발대회 등 진행

대전충남인쇄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제3회 대전충남인쇄문화축제2011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대전삼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구자빈)이 주최하고 대전인쇄문화RIS사업단(단장 김학진)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화합, 단결!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후원했으며, 염홍철 대전광역시 시장과 임영호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김창수 국회의원, 한현택 동구청장, 강복순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장, 류정열 대덕특구인쇄출판산업단지 추진조합 조합장, 김학진 대전인쇄문화RIS 사업단장 및 대전충남 인쇄인가족,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글 | 안세민 기자 heroic127@print.or.kr

### 백년대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합과 단결 도모해야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조합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이 폐지되고, 인쇄물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종전보다 확인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세종시 건설이 제자리를 찾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전충남유치가 확정됨으로써 우리 대전충남인쇄출판사업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며 "오늘의 인쇄문화 축제가 우리 인쇄가족 모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활기찬 미래를 여는 축제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1. 대전충남인쇄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2. 개막전부터 진행된 축구대회는 재료 지업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3. 개회식이후 경품추첨을 하는 구자빈 이사장.
4. 42인치 LED TV 경품을 수여하는 염홍철 대전시장.
5. 줄다리기 경기는 팀 구분없이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6. 류정열조합장과 구자빈이사장이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방문한 염홍철 대전시장과 함께 자리를 하고있다.
7. 릴레이 경주 역시 재료 지업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8. 개막식에서 진행된 공로패 시상식

류정열 대덕특구인쇄출판산업단지추진조합 조합장은 “올해는 우리나라 인쇄출판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대덕특구인쇄출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 이에 우리 대전 충남인쇄인들은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지역 인쇄인간 화합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해야할 것”이라고 인쇄인들에게 당부했다.

염홍철 대전광역시 시장은 축사에서 “최근 종이값 등 재료가 크게 올라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묵묵히 인쇄인의 길을 걸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계신 여러분께 존경을 표한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회원들의 친목도모의 장이 됨은 물론 인쇄산업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인쇄인의 큰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쇄인들의 우의와 화합을 이룬 무대

이번 행사는 개회식 전 축구예선과 함께 공로패수여, 인쇄인 달인 선발대회, 축구결승, 릴레이 경주, 줄다리기, 인쇄인 노

래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축구대회와 릴레이는 기획·출력, 재료·지업사, 오프셋·경인쇄, 후가공 팀으로 나뉘 진행됐으며, 축구대회와 릴레이 경기는 재료 지업사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큰 인기를 모은 인쇄인 달인 선발대회는 인쇄인들답게 교정의 달인, 수정합의 달인, 타자의 달인 등으로 구분돼 열렸으며, 교정의 달인에는 도선출판 이화의 성정인씨, 수정합의 달인에는 한국문화인쇄의 한희열씨, 타자의 달인에는 현대광고기획의 임성아씨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줄다리기(단체전), 인쇄인 노래자랑도 열렸다.

이날 축제는 경품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타올을 증정했으며, 드림세탁기, 벽걸이형LED TV, 김치냉장고, 압력밥솥, 침구청소기, 난방기, 문화상품권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다. 행사 마지막에 열렸던 인쇄인노래자랑에는 각자의 장기와 노래실력을 뽐내며 인쇄인들의 우의와 화합을 이루는 무대가 되었다. ☺